

[공개토론회] 한국경제의 재조명

KDI는 조선일보 후원으로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경제의 재조명”라는 주제로 6개 주요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목: **한국경제의 재조명**
- 장소: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관: KDI
- 후원: 조선일보

<주제 및 일정>

회 차	주 제	제 목(잠정)	개최일자
1차	총론	“뺏겨 걸린 한국경제, 탈출구는?”	2. 7(화)
2차	복지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앉지 않는 국민”	2. 15(수)
3차	일자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고용 창출”	2. 27(월)
4차	가계부채	“가계 부채, 한국 경제의 뇌관인가”	3. 6(화)
5차	기업	“양극화로 치닫는 기업 경쟁력”	3. 20(화)
6차	대외/북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의 성공조건”	3. 27(화)

<모시는 글>

올해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결과, 우리나라는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분야에서 빠른 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멀고, 그 길이 그리 순탄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인구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불공평해지고 있으며,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래에 희망을 걸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경제는 활력을 잃을 것이며 사회는 응집력을 잃을 것입니다. 또 사회 각 부분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정책이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우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DI는 “한국경제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여섯 번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 나머지 토론회에서는 복지, 일자리, 금융, 기업 경쟁력, 대외경제정책 등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지식과 통찰을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2월

KDI 원장 현오석

<총론: “뺏에 걸린 한국경제, 탈출구는?”>

2012년 2월 7일 화요일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세션

개회사

현 오 석 (KDI 원장)

“뺏에 걸린 한국경제, 탈출구는”

사회

현 오 석 (KDI 원장)

10:10~10:30 발표

고 영 선 (KDI 연구본부장)

10:30~12:00 토론

조 순 (바른경제동인회 회장/(전)부총리)

사 공 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 영 철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박 진 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유 장 희 (BBB Korea 회장/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찾아오시는 길>



100-021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명동1가)

교통편

- 지하철: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출구, 지하철4호선 명동역 6,7번출구
- 버 스: 을지로입구 하차
01(노랑), 103(파랑), 105(파랑), 152(파랑), 261(파랑), 405(파랑), 472 (파랑)

문의

- 담당자: (02) 958-4068, jiryung@kdi.re.kr